소금산 출렁다리에 무르익은 늦가을 정취

강원도 여러 곳 중 원주는 상대적으로 이동 시간이 덜 걸리는 여행지다. 기차를 타거나 차로 이동하거나 대략 2시간 안팎이면 도착한다. 요즘 원주는 치악산을 중심으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볼거리가 풍성하다. 아이들과 당일 또는 1박2일 정도의 가을여행을 생각한다면 시간과 비용 투자 대비 만족도가 높은 '가심비' 좋은 여행지다.

높이 100m에 바닥 보여 스릴 넘쳐
치악산 둘레길 11코스 난코스 적어
미디어파사드 '나오라쇼' 국내 최대
구룡사 세렴폭포, 2단 물줄기로 유명

1 치악산 구룡사 계곡의 명소인 세렴폭포는 2단으로 휘어져 떨어지는 물줄기의 경관이 유명하다. 2 최근 개통한 치악산 둘레길 11코스 한가터길은 오밀조밀한 길이 걷는 재미가 있고 이어지는 계곡과 숲의 다양한 풍광이 볼만하다. 3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저녁 때 볼 수 있는 미디어파사드. 거대한 암벽 위에 가로 250m, 높이 70m의 영상을 투사해 장관을 이룬다. 4 고즈넉한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치악산 구룡사. 14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이다.

원주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소금산 출렁다리

●걷고 보는 재미 쏠쏠한 둘레길

강원 지역의 다른 산에 비해 치악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웅장한 산세와 험난한 코스로 은근히 '악명'(?)이 높다. 오죽하면 '치가 떨리고 악에 받치는 산'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있을까.

치악산 둘레길도 다른 곳과 비교하면 난이도가 좀 있다. 하지만 총 11코스 1392km에 달하는 치악산 둘레길 중 최근 개통한 11코스 한가터길은 그런 점에서 부담없이 걸으며 가을 산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길이다.

숯돈골과 한가터를 거쳐 국형사까지 이어지는데 바삐 걸으면 40분 안팎에 마칠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느긋하게 걷는 걸 추천한다. 산자락을 따라 좌우로 구불구불 휘어지며 간간히 가벼운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코스가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걷는 동안 계곡과 숲의 다양한 풍광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 어려운 구간이랄 게 특별히 없이 무난한 여정이다.

다만, 국형사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초입서 3~4분 정도 계단길 오르기는 각오해야 한다.

●출렁다리 걷고, 미디어파사드 보고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최근 '핫'하게 떠오른 곳이 소금산 그랜드밸리다.

예전 80, 90년대 대학 MT와 가벼운 나들이 명소로 사랑받던 간현유원지란 이름이 더 친숙한 곳이다. 섬강과 삼산천 강물이 합수되는 지점인데 맑은 물과 근육질의 우람한 자태를 자랑하는 절벽이 어우러져 풍광이 일품이다.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출렁다리를 출발해 데크 산책로-소금잔도-전망대-소금산 울렁다리를 거쳐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는 코스로 이뤄져 있다. 이중 정상 아래 산벼랑을 끼고 200m 절벽에 총 363m 길이로 조성하는 잔도와 전망대 스카이타워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12월 개장 예정이다.

원주 여행객에게 이제 '머스트 비짓' 코스로 자리잡은 출렁다리는 길이가 200m이며 높이도 100m에 달한다. 바닥이 아래가 훤히 보이는 격자발판이어서 내려다보면 은근 오금이 저린다. 다리 중간쯤 이르면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바람으로 출렁이는 다리 진동이 몸으로 느껴져 스릴이 배가 된다. 하지만 가장 떨리는 지점인 이곳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그런 두려움을 잊게 해줄 정도로 빼어나다.

저녁에는 미디어파사드 '나오라쇼'와 음악분수쇼가 펼쳐진다. 국내 최대 규모로 절벽을 스크린 삼아 가로 250m, 높이 70m의 영상을 투사한다. 미디어파사드에 이어 음악분수쇼도 진행한다. 최대 60m 높이까지 물줄기를 쏘아 장관을 연출한다. 아이들과 함께 볼 만하지만 산간이라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방한복과 핫팩 등을 챙겨야 고생하지 않는다.

●1400년 고찰의 정취

새로운 관광명소가 많이 생겨도 치악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구룡사를 빼놓지 않는다. 1400년 역사의 고찰로 서기 668년(신라 문무왕 8년)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됐다. 산속에 고즈넉하게 자리한 절집의 자태도 예쁘지만, 매표소를 지나 절까지 가는 길도 가을 풍광이 멋져 여행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구룡사 계곡의 명소 중 하나인 세렴폭포는 2단으로 휘어져 떨어지는 물줄기로 유명하다. 인근 구룡폭포와 함께 치악산을 대표하는 관광 포인트다.

원주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깊어진 서울의 가을, 인스타 라이브로 만나요"

서울관광재단 '서울 라이브 투어'
단풍·음식·자연·고궁 4가지 주제로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의 가을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소와 테마를 소개하고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서울 라이브 투어 Autumn in Seoul'을 진행한다.

11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라이브 방송은 방송과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국적의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매력적인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절에 맞는 즐길거리를 소개한다.

라이브 투어는 단풍, 음식, 자연, 고궁 등 네 가지 주제로 실시한다. 6일 첫 방송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인플루언서 김야니가 딸 고수빈과 함께 단풍이 무르익은 서울숲에서 모녀 데이트를 즐긴다. 13일에는 미국인 인플루언서 울프 슈뢰더(대한미국놈)가 남대문 시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소개한다. 20일은 37만 구독자의 유튜브 뮤직 크리에이터 권유경이 콜드플레이 뮤직비디오에 등장한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가을과 어울리는 노래를 부른다.

마지막으로 27일에는 '비정상회담'으로 친숙한 방송인 일리야가 창경궁 야간개장 현장에서 창경궁과 관련된 역사지식을 소개한다. 라이브 방송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있다.

이혜진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기를 맞아 서울시민은 물론 국내외 잠재관광객에게 서울관광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1월 5일 (금) 음력: 10월 1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청색 길방:동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 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말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양** 행운색:적색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닭**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개** 행운색:흰색 길방:서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돛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걱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다. 노력을 하여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아이더, '홀리뱅' 다운 자켓 화보 공개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Mnet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최종 우승팀 '홀리뱅(HolyBang)'과 함께 한 다운 자켓 화보(사진)를 공개했다. 화보에서 홀리뱅은 아이더의 다양한 다운 자켓을 활용해 개성있는 룩을 완성했다. 화보를 통해 아이더는 영아웃도어를 표방한 다운 컬렉션을 다채롭게 조명했다. 겨울 시즌 대표 스테디셀러 '스투키(STOOKY)' 구스 다운이 중기장 형태 '스투키 플렉스' 등 강화된 라인업으로 돌아와 눈길을 끈다. 허니제이가 착용한 '그램 다운'은 경량감이 뛰어난 씬다운 소재가 적용돼 슬림한 실루엣이 돋보인다. 이 밖에도 화사한 컬러 구성의 '엘로이 다운', 유광 소재로 유니크함을 더한 '샤옹' 다운 등 다양한 아우터의 색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K2, 야상 숏패딩 '레프 다운'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편안하면서 캐주얼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야상 숏패딩 '레프(LEV)' 다운(사진)을 출시했다. '레프 다운'은 내구성과 방풍 효과가 뛰어난 타슬란 소재와 리사이클 다운 충전재를 적용해 가볍고 편안하며 따뜻하다. 소매와 밑단 시보리가 틈새를 파고드는 외부 찬 바람의 유입을 차단해 겨울철 추위 걱정없이 따뜻하게 입기 좋다. 다운 겉면의 소매, 가슴, 사이드 주머니에 다양한 사이즈의 포켓을 적용해 수납력이 뛰어나다. 엉덩이를 살짝 덮는 블루종 스타일의 숏 기장으로 자유로운 활동성을 보장한다. 후드 일체형의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요소까지 두루 갖춰 아웃도어룩부터 데일리룩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36만 원.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숙박할인권 발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온라인여행사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3만 원을 할인하는 숙박할인권을 제공한다. 1인당 1회 선착순이다. 앞서 실시한 '지역편'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투숙기간은 비수기 관광활성화와 추가 여행수요 창출을 위해 연말연시를 제외한 9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 사용(예약)해야 한다.

오늘의 날씨 5일(금)

서울 0/0	10 / 20	인천 0/0	11 / 18
춘천 0/0	7 / 19	강릉 0/0	10 / 21
대전 0/0	7 / 20	전주 0/20	8 / 21
광주 0/20	9 / 21	대구 0/0	7 / 20
부산 0/20	12 / 22	창원 0/20	9 / 20
제주 20/30	14 / 22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최저 /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9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